

1 동정

- ▶ **조정석** 서울인쇄정보조합 이사장은 최근 서울 중구청을 방문, 불우이웃 돕기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 ▶ **이철안** 울산·경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경남교육청에 도내 결식아동에게 급식비로 써달라며 기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
- ▶ **강규진** 제주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제주 사랑의 열매(회장 박찬식)를 방문,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 ▶ **이정준** 한국출판학회 회장은 지난 1월 7일 오후 6시30분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신년 교례회를 열었다.
- ▶ **인병무** 서기관이 청주고인쇄박물관 관장에 2009년 1월 1일자로 취임했다.
- ▶ **최병민** 한국제지연합회 회장은 지난 1월 8일 신라호텔에서 2009년도 제지인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 ▶ **김영길** 인우회 회장은 연말 불우이웃돕기 행사로 지난해 12월 29일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에 위치한 비전트레이닝센터를 방문하여 후원금을 전달했다.
- ▶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1월 15일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주)지엠피(대표이사 김양평)에서 실물경제지원기관협의회에 참석, 기업의 의견을 청취했다.

2 화촉

- ▶ **민재기** 정문사문화주 대표이사의 딸 지영양이 지난 1월 18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예식장에서 화촉을 밝혔다.
- ▶ **남영복** 월간 인쇄계 부장이 지난 1월 17일 공군회관에서 화촉을 밝혔다.
- ▶ **박래수** 삼부문화주 대표이사의 아들 윤호군이 지난해 12월 28일 웨딩의전당에서 화촉을 밝혔다.

3 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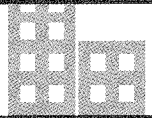
- ▶ **강성곤** (주)정문사이트컴 대표이사의 부친이 지난해 12월 22일 별세했다.

4 이전

- ▶ **7사랑**(대표 이명호)은 최근 상호를 7사랑디자인으로 변경하고 사업장을 서울시 중구 예관동 70-4로 이전했다.
- ▶ **인후아트**(대표 이민재)는 최근 사업장을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198로 이전했다.

:: 인쇄단체 · 기관뉴스

Association news



인협, 2월 24일 호텔PJ서 정기총회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는 오는 2월 24일 10시 30분 서울 중구 호텔PJ에서 200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충원)는 2월 26일 10시 30분 소피텔 엠버서더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연다.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조정석)은 2월 19일 10시 30분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정기총회를 연다.

작년 인쇄물 수출액 18.9% 증가한 2억5천만 달러 기록

관세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인쇄물 수출액은 2007년도 2억1314만3천 달러에서 18.9% 증가한 2억5004만8천 달러를 나타냈다. 수출 품목 중 설계도와 도안은 1천943만3천 달러로 전년 대비 330.7%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였다. 인쇄물 수입액은 2007년도 3억5440만4천 달러보다 2.6% 증가한 3억6352만2천 달러를 기록했다. 인쇄기자재의 수출액은 2007년도 14억2802만7천 달러에서 8.1% 증가한 15억4388만8천 달러로 조사됐다. 반면에 인쇄기자재 수입액은 2007년도 17억9238만4천 달러에서 3.2% 감소한 17억3445만3천 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인쇄기자재 수입 품목 중 활자주조용, 식자용기기 및 부분품을 제외한 제책기계, 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의공용기계, 인쇄기, 인쇄제판용의 카메라, 인쇄제판용 롤상필름자동현상기기는 모두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인쇄 노동생산성 가장 큰폭 감소

경기침체로 산업생산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노동투입량은 늘면서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7년만에 전년 동기대비 감소세를 기록했다. 특히 인쇄업은 전년 동기대비 -18.5%가 감소해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를 보였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생산성본부는 지난해 3분기 제조업 노동생산성 지수는 121.3(2005년=100)으로 2007년 3분기(121.8)에 비해 0.4% 낮아졌다고 밝혔다.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전년 동기대비 감소한 것은 2001년 3분기에 4.0% 감소한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노동생산성이 감소한 것은 조업일수가 2007년 3분기 60일에서 작년 3분기 64일로 늘어나면서 노동투입량은 늘어났지만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산출량 증가세가 노동투입량 증가세에 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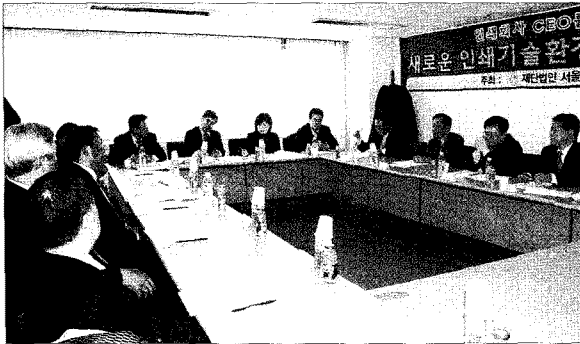
부문별로는 정보기술(IT)분야의 증가율은 2.4%, 중화학공업과 대기업은 각각 1.0%, 0.4% 증가했다. 반면 비(非)IT 분야는 1.0%, 경공업은 3.3%, 중소기업은 2.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기타 운송장비(24.2%), 비금속 광물제품(9.9%), 펄프·종이제품(9.6%)은 증가세가 두드러졌으나 출판·인쇄·기록매체(-18.5%), 목재, 나무(-14.6%), 조립금속(-14.3%) 등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기협중앙회, 생산직 노임 평균 5만2388원

중소기업중앙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로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 자료 제공을 위해 중소기업 1200개 업체(중사자 20인~299인)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도 중소기업 직종별 임금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생산직 근로자 전체 조사직종(177개)의 평균 조사노임(임금)은 5만2388원으로 전년의 4만8566원보다 7.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쇄관련 직종 조사노임은 활판인쇄공 5만7421원, 사진제판공 6만1925원, 오

프셋인쇄공 6만3979원, 인쇄동판제조원 6만4449원, 제본공 6만573원 등이다.

## 서울인쇄센터, '인쇄업계 발전방안 간담회' 개최



(재)서울인쇄센터는 인쇄업계의 발전방안과 서울인쇄센터 운영에 대한 인쇄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지난 1월 7일 서울인쇄센터 2층 교육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인쇄센터 운영위원들은 인쇄업계의 발전을

위해 서울인쇄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컨설팅 및 바이어 발굴 사업, 교육사업 등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토론했다.

## 출판인 신년 교례회 열어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백석기)는 지난 1월 6일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2009년 신년 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모철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이기웅 파주출판문화재단 이사장, 노영현 한국잡지협회 회장, 김종영 한국출

판협동조합 이사장, 김재복 한국제책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민병욱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 등 내빈과 많은 출판인들이 참석했다. 백석기 회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출판환경에서도 곳곳이 좋은 책 만들기에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새해에는 출판인 모두에게 따뜻한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축하 떡 자르기와 건배제의가 진행됐다.

## 잡지협회 신년교례회 개최



한국잡지협회(회장 노영현)는 지난 1월 7일 코리아나호텔 7층에서 협회 회원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김동성 국회의원, 김재운 국회의원, 민병욱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 서정우 한국언론

인연합회장, 백석기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김흥기 한국사보협회 회장 등을 비롯한 관련단체장 및 잡지인 200여명이 참석했다. 노영현 회장은 신년사에서 "지난해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이 새롭게 제정된 한해였으며 올해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으나 조금증을 벗어나 우직하고 성실한 소처럼 꾸준히 노력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한해로 만들자"고 말했다.

## 4 이진

- ▶ 태성바인텍(주)(대표이사 김재복)는 최근 사업장을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327-30으로 이전했다.
- ▶ ㈜비커뮤니케이션즈(대표이사 박희봉)는 최근 사업장을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671-9로 이전했다.

## 5 변성

- ▶ 정광인쇄출판(주)(대표이사 이병울)는 최근 상호를 정광인쇄주로 변경했다.
- ▶ ㈜코플커뮤니케이션의 대표이사에 최근 이준환 씨가 취임했다.
- ▶ 로템프린테크(대표이사 신용섭)는 최근 상호를 현성프린테크로 변경하고 사업장을 서울시 중구 충무로5가 84-1로 이전했다.
- ▶ 씨에스기획(대표 남용식)은 최근 상호를 포인트로 변경하고 사업장을 서울시 중구 충무로5가 20-5로 이전했다.
- ▶ ㈜정인아이앤디의 대표이사에 최근 조정현 씨가 취임했다.

## 통일규격유가증권 등록가채소 6개 업체 승인

최근 증권예탁결제원(사장 이수화)은 통일규격유가증권취급규정 시행세칙 제11조에 의거하여 2009년도 통일규격유가증권 등록가채소 승인을 공고했다. 올해 승인된 업체는

아주인쇄(주)(대표이사 이동준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161)

(주)에이디씨텍(대표이사 강성일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37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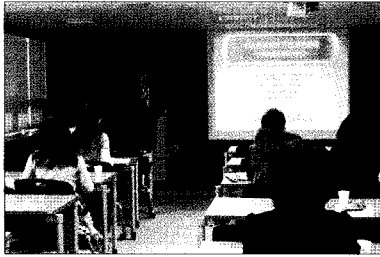
(주)게슈타프(대표이사 장석열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3동 314-34)

(주)광인사(대표이사 김광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91-16)

신정프린테크(주)(대표이사 김종철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4가 118-63)

(주)케이미디어(대표이사 신호인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00-4) 등 6개 업체이다.

## 한국사보협회 정기교육 실시



한국사보협회(회장 김흥기, www.sabo.or.kr)는 지난 1월 14일 서울청소년수련관 세미나실에서 2009 기업커뮤니케이션 담당자 1월 정기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정기교육은 글로벌 시대의 경제와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IMC)라는 주제로 이창우 교수(중앙대 글로벌 HRD FTA과정 대학원)가 글로벌 시대의 경제와 FTA현황과 전망에 대해, 박기철 교수(경성대 광고홍보학과)가 글로벌 시대의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IMC), 전미옥 한국사보협회 부회장이 불황시대의 기업홍보매체 기획과 전략노하우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 청주, 직지 기념우표 만든다

‘나만의 우표’ 세트 형식으로 현존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으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인 ‘직지심체요절’ 기념우표가 나온다. 청주시는 직지를 국내외에 홍보하고 직지를 펴낸 청주의 ‘문화예술 도시’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 ‘직지 기념우표’를 만들기로 했다. 시는 2400만원을 들여 우정사업본부와 협의를 거쳐 빠르게 3월을 전후해 제작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직지 영인본 ▶직지를 만드는 과정 ▶청주시의 직지 브랜드 ▶직지 복원본 ▶직지의 세계기록 유산 등재 인증서 등 직지와 관련된 다양한 사진과 자료 등을 담은 우표 20~30장을 1개 세트로 제작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이 우표는 올 9월 청주에서 열린 ‘유네스코 직지상’ 시상식에 참가하는 각국의 문화예술계 인사 등에게 기념품으로 전달하고 국내외 각종 인쇄관련 행사 때 홍보용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직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오는 5월과 10월에 열리는 ‘뉴욕 북 엑스포 아메리카’,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등에 참가해 직지 제작과정을 인형 등으로 표현한 디오라마, 금속활자 복원본, 직지 영인본 등을 전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직지의 역사적 의미와 제작과정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나만의 우표’ 형식으로 기념우표를 만들 예정”이라며 “이 우표는 직지를 홍보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교원대, ‘직지’ 인쇄문화적 가치 교육

충북 청원군 한국교원대가 현존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으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인 ‘직지심체요절’의 인쇄문화적 가치 등을 초·중·고교 교사에게 알리는 데 적극 나선다.

교원대에 따르면 이 대학 공업기술연구소(소장 김진수 교수)는 오는 4월부터 연말까지 5차례에 걸쳐 도내 초·중·고교 교사들의 신청을 받아

학교 교육연구원에서 직지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는 연수를 회당 30시간씩 펼칠 예정이다. 이 연수에서는 직지와 고인쇄문화, 청주고인쇄박물관의 역할 등에 대한 이론교육은 물론 책 꿰기, 한지 만들기, 종이 공예 만들기, 금속활자 주조 및 조판, 책 만들기 등의 체험 행사가 펼쳐진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14개 과목으로 짜인 이 같은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연구소는 또 내년에는 연수 참가 교사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 교수는 “청주 흥덕사(현재 터만 남아 있음)에서 인쇄된 직지의 소중함을 학생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교사를 대상으로 이 같은 연수 프로그램을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1377년 인쇄된 직지는 상·하권으로 돼 있으나 현재 하권만 프랑스에 남아 있으며 2001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 경찰간부 고인쇄박물관에 고서 기탁

한 경찰 간부가 소장 대대로 물려받은 고서를 청주고인쇄박물관에 기탁했다. 청주 상당경찰서 김제웅(55·경정) 생활안전과장은 최근 노어언해, 맹자언해, 사우당집 등 19세기 후반 목판본과 1900년대 초기에 간행된 중국도서 등 고서 36종 107점을 고인쇄박물관에 내놓았다.

1976년 경찰공무원을 시작한 김 과장은 세종대왕 때 예조판서 김담(金淡) 등을 배출한 예안 김씨 문절공파의 27대 장손. 그의 조상들이 대대로 살아온 충북 청원군 미원면 고향집에는 예전에 고서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고 한다. 김 과장은 “좋은 자료를 집에 그대로 두면 제대로 보관하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말을 듣고 기탁을 결심하게 됐다”며 “많은 분들이 함께 볼 수 있게 돼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인쇄박물관측은 “기탁받은 고서들은 조선 후기 목판본으로 당시의 인쇄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평가했다.

## 청주시한국공예관, 겨울방학공예체험행사



청주시한국공예관(관장 김종벽)이 겨울방학을 맞아 2월 13일까지 겨울방학공예체험행사를 진행한다. 겨울방학공예체험행사 중 나만의 공예품 만들기는 도자, 한지, 솟대, 서각

체험 등으로 구성된다. 도자는 소띠해를 맞아 토우만들기와 필통 및 그릇 만들기, 도자기 풍경(모빌)만들기가 실시되며, 한지공예는 북바인딩, 서랍연필꽂이, 직사각필통 등 한지를 이용한 다양한 생활소품을 만든다. 이밖에 나무에 꿈과 소망을 새겨넣는 서각체험과 미니솟대체험 등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채로운 공예작품을 관람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도 갖는다. 도자 한지 규방 염색 등 한국공예관 아카데미 수강생들의 작품 200여점을 한눈에 보면서 공예의 참다운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 :: 인쇄 · 프리프레스 뉴스

Printing Progress news



### 팩컴코리아, FSC COC인증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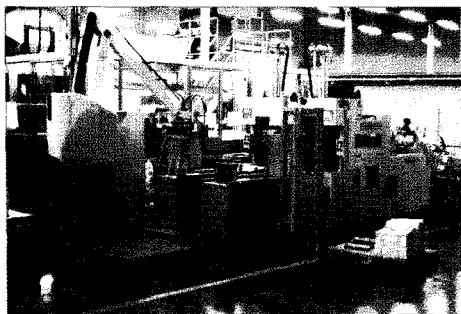
팩컴코리아(주)(대표이사 김경수, www.gopacom.com)는 최근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Control Union Certifications(유럽 유기농 인증기관)가 팩컴 군포·안산공장 등을 직접 방문해 인쇄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을 점검 심사한 후 종이의 제조, 가공 과정에 관한 FSC COC

인증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팩컴은 친환경 기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고객의 요구에 따라 생산되는 제품에 FSC로고를 부착하여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FSC COC 인증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수출 증대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팩컴코리아 김경수 대표이사는 "팩컴은 FSC COC 인증 획득을 계기로 앞으로도 끊임없는 친환경 경영 노력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인쇄·출판·제지 분야에서 FSC COC 인증 용지 및 재생종이를 확대하여 생산, 사용함으로써 환경보존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신안테크, 재능인쇄에 스테커 번들러와 가습장치 공급



신안테크(주)는 지난해 연말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주)재능인쇄에 교토프린팅의 스테커 번들러와 닛까사의

(R.F.S)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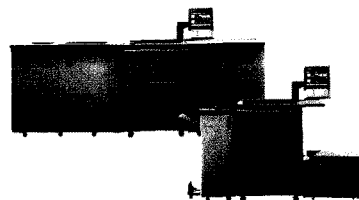
재능인쇄에서 이번에 도입한 스테커 번들러는 모든 작업 전환 기능이 전자동으로 이뤄지며 수동으로 전환, 수동조작도 쉽게 가능하다. 전자동 방식을 채택하여 쉽고 간단하게 작업 전환이 이뤄지며 컴팩트한 디자인과 저소음으로 작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설계 및 기능에 충실해 일본 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장비다.

국내에서 보수관리가 가능하며 프로그램상의 문제해결도 제조회사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에서 간단하게 해결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수입 장비의 대부분이 한글화가 지원되지 않아 기능 숙지가 느리고 장비의 완벽한 조작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교토사의 장비는 조

작 패널이 모두 한글과 일본어로 되어있어 작업자들이 쉽게 조작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문제 발생 시에 고장 원인이 화면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누구라도 쉽게 보수관리가 가능하다. 모든 기능이 작업자 중심의 설계로 이뤄져 있다는 게 이 장비의 특징이며 현재 10여대의 장비가 국내에서 가동 중에 있다.

한편, 닛까사의 가슴장치(R.F.S)는 운전기의 칠 롤러 부분에 장착되어서 드라이어에서 소실된 용지의 수분을 복원시켜주는 장비로서 국내에서 인증된 제품이며 현재 20여대가 미래엔컬처그룹(구 대한교과서)을 비롯, 여러 회사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 품질 개선 효과는 기본이며 기능이나 조작이 간단하고 노즐방식이 아닌 로타 방식으로써 장기간 사용 시에도 노즐 막힘이 없고 보수관리가 간단하다. 신안테크는 교토 프린팅사 및 닛까사의 한국 판매 대리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성진애드컴, PDF솔루션 LD-6500 및 호리존 제책기 BQ-470등 도입



서울 충무로에 위치한 (주)성진애드컴(대표이사 이정희)은 지난 1월 7일 호리존의 4클램프 제책기 BQ-470과 완전 자동 B2사이즈 접지기

AFC-566FLG 2호기 및 코니카미놀타의 디지털 컬러 장비 LD-6500 2대를 도입했다.

BQ-470은 자동화 제책기로 시간 당 최대 1350권을 생산할 수 있으며 간편한 인터페이스로 쉬운 조작성이 특징이다. 옵션인 SI-470 책 두께 측정 장치를 장착하면 책 두께를 캘리퍼로 측정, 제책기의 클램퍼가 그 두께에 맞게 자동으로 조정한다. 디지털 프린터의 출력물에 특화된 SI-470은 정확한 등폭량 조정, 고강도의 옆물, 책 두께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되는 표지 오시 등 제책기가 필요한 장점을 모두 갖춘 기기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이번에 함께 도입한 POD 솔루션인 LD-6500은 분당 65매의 속도로 풀컬러 도큐먼트를 출력하는 장비로서 고품질, 소량 다품종인쇄, 단납기 등 고객의 요구에 충실히 대응할 수 있다. 전문 인쇄시장을 타겟으로 독창적으로 디자인되어 가격대비 최고의 품질 및 생산성을 인정받고 있다. LD-6500은 프로페셔널 모델일 경우, 최대 7500매의 용지 공급이 가능하며 대량인쇄를 위한 견고한 본체에 다양하고 강력한 후가공 장치(접지기능, 중철기능, 재단기능)를 장착하고 있다.

(주)성진애드컴의 김세진 이사는 "늘어가는 외주와 그에 따른 비용, 고객의 높아져가는 단납기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높은 생산성에 인건비 등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호리존의 자동화 제품군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주)성진애드컴은 호리존 자동 접지기2기와 자동 무선제책기, 정합기를 비롯한 중철라인 시스템 스티치라이너를 보유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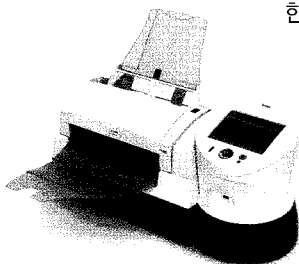
## 충주문화사, 호리존 중철라인 SPF-200A+FC-200A 및 정합라인 도입

서울 충무로5가에 위치한 충주문화사(대표 원종한)는 지난 1월 9일 스크린을 공급하는 호리존의 자동 중철 라인 SPF-200A+FC-200A와 정합 세트를 도입했다.

SPF-200A+FC-200A 중철 라인은 정합, 중철, 접지, 전면재단의 인라인 중철 제본 시스템으로 상철 및 코너철 등 다양한 작업이 가능하며 컬러 터치 스크린상에 사용이 용이한 아이콘 타입을 채택하고 있다. 자동 세팅 및 오퍼레이션이 간편하고 트러블의 처리를 신속히 할 수 있다. A4 기준 최고 4500세트/시간의 고속 중철 제책시스템으로 A4~B7사이즈까지 대응하며 고정밀로 광범위한 용도에 적합하다. 그 외에 잘못된 중철물은 리젝트 트레이로 자동 배출시키고 정상적인 제책물만 컨베이어로 이송하여 논스톱 구동을 실현했으며 중철 후 접지부 발차는 원터치로 분리가 가능, 사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했다.

충주문화사의 원종한 대표는 "이전에 도입한 제본기 BQ-470등이 안정적이며 트러블이 적어 호리존 기기에 만족한다"며 "이번에는 호리존의 자동 중철기인 SPF-200A+FC-200A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도입으로 충주문화사는 호리존 에어식 정합기 VAC-100 6타워와 자동 무선제본기 BQ-470, 중철라인 1시스템을 보유하게 되었다.

## 한국코닥, 삼성화재에 스캔스테이션 120EX 대규모 납품



한국코닥(대표 안화균, www.kodak.com)은 고속스캐너 스캔스테이션 120EX를 삼성화재의 문서관리 솔루션으로 대량 납품했다고 밝혔다. 삼성화재는 그동안 수많은 계약서, 보상, 심사 등 법률관련 문서 등의 방대한 문서의 관리와 보관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이

의 극복을 위해 스캔스테이션 120EX를 전면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캔스테이션 120EX는 사용자가 일반문서 뿐만 아니라 사진, 신분증, 이메일, HTML, 바코드, 오디오나 비디오와 같은 멀티미디어 파일까지 스캔스테이션을 통해 스캔 및 통합관리를 할 수 있으며 모든 데이터는 PC나 스캐너가 아닌 메인서버를 통해 컨트롤 한다. 이에 따라 문서의 보안관리, 데이터의 별도 저장으로 자료 유실 위험이 격감하며 저장된 데이터는 사용자의 보안등급에 따라 관리가 되며 네트워크 스캐너여서 주요 협력업체와의 업무시의 연동도 가능, 보다 빠르고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한다.

한국코닥은 삼성화재의 전 지점에 스캔스테이션 120EX모델을 공급하였으며 삼성화재만을 위한 맞춤 소프트웨어 솔루션도 제공했다. 그동안 사용자가 일일이 문서를 검색, 복사하여 상대 연락처를 확인하고 팩스로 전

송, 확인하던 절차가 버튼하나로 간단히 해결되어 생산성의 향상을 기대게 된다. 또한 출력 시 토너, 용지비용 등 유지관리 비용도 줄어들고 보관 시에도 종이문서에 비해 극히 적은 공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다.

코닥 스캔스테이션 120EX는 양면인식 컬러스캐너로 200dpi의 해상도로 분당 25매 낱장 스캐닝이 가능하다. 명함크기부터 A4까지 다양한 문서 인식이 가능하고 자동기울기 보정기능이 있어 급지시 문서가 약간 기울어져 저도 자동으로 인식 하여 보정한다. 또한, 코닥의 퍼펙트 페이지 기술로 컬러, 밝기, 대비, 가독성, 방향 및 배경이 교정할 수 있다.

## 광민원색인쇄, 하이델베르크 CTP 수프라세터 및 플라 컴퓨터 설치

울산에 소재한 광민원색인쇄(대표 양중태)는 최근 하이델베르크 CTP 수프라세터 105와 함께 플라 재단기에 온라인 재단 데이터 전송을 위한 컴퓨터를 설치했다. 이번 프리프레스 부분 확장으로 광민원색인쇄는 인쇄 토털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프리프레스와 인쇄 부분뿐 아니라 후가공 부분까지 온라인 연결되어 품질과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도입한 하이델베르크의 서멀 CTP 수프라세터는 내장 편칭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정확한 핀 맞춤으로 인쇄 작업 준비 시간 및 손지 절감을 실현한다. 수프라세터는 새로운 모듈을 더해 지속적으로 생산량을 늘릴 수 있으며 인텔리전트 다이오드 시스템(IDS)을 갖추어 하나의 다이오드가 손상으로 작동을 멈추더라도 최대의 생산성을 유지하며 계속 구동할 수 있다. 온도 보정 기능은 수프라세터 레이저의 내부 온도와 드럼의 표면 온도를 안정시켜 레이저의 수명을 최대한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핀 맞춤이 부정확해 지는 것을 예방한다. 플라 컴퓨터는 프리프레스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재단 프로그램을 생성, 작업 준비 시간을 감소시켜 고속 재단기의 멈춤 시간을 줄여 생산성을 높여 준다.

## DPG쇼2009 바이어마케팅센터 전문요원으로 운영키로

오는 4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 인도양 홀에서 열리는 제6회 국제 디지털프린팅 및 그래픽 디자인전(DPGshow)가 더욱 활발한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 바이어마케팅센터(Buyer Marketing Center:BMC)를 전문요원으로 구성, 실질수요를 일으키는 바이어 확대에 주력키로 했다. 타 산업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적용되어오다가 분야 간 융복합화 현상으로 인해 거대시장을 형성해가고 있는 디지털인쇄산업은 실사연출, 디지털날염(DTP: Digital Textile Printing), 디지털인쇄(Digital Publishing), 디지털 포도 등이 디지털프린팅 산업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 DPG쇼 2009사무국의 관계자는 DPG쇼는 바로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면서 디지털프린팅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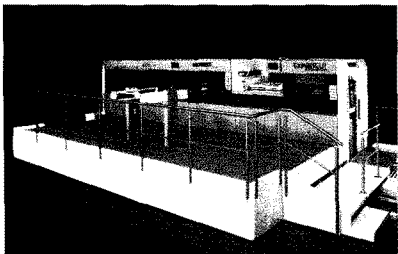
이에 따라 참가업체들이 다양한 솔루션들을 구매력 높은 실수요 관람객

들에게 제시함으로써 활발한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 있도록 주최 측에서는 바이어 마케팅 센터(Buyer Marketing Center:BMC)를 운영해 더 많은 실질수요층을 관람객으로 유치하고 있다. BMC를 마케팅 전문 요원들로 구성해서 국내외 유효 바이어 DB 구축 및 보완, E-뉴스레터 제작·발송, 타깃 바이어 DB 확보, TM 수행 및 초청장 발송 등을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참가업체와의 바이어 매치메이킹(matchmaking)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DPG쇼2009 사무국은 지난 1월 16일부터 조기신청접수가 성황리에 마감되었으며 기존 참가 업체의 34% 이상이 참가신청을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으로는 일반신청이 가능하며 총 참가업체의 90% 이상이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확대된 부스규모로 내년도 참가를 희망하고 있어 DPG쇼 2009의 행사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DPG쇼2009의 공식홈페이지(www.DPGShow.co.kr)를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전화나 이메일로도 언제든지 접수가 가능하다. (02-6000-1395)

## 만로랜드코리아, BOBST와 전략적 제휴



만로랜드코리아(대표이사 케네스 엠 한센, www.manroland.co.kr)는 지난 1월 1일부터 세계적인 패키징 장비 생산 업체인 BOBST와 전략적인 제

휴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스위스 로잔에 본사를 두고 있는 BOBST는 지난 1890년 창사 이래 다이커터, 접착기, 그라비아인쇄기 등을 전 세계에 공급해 왔으며 특히 다이커터와 접착기 분야에서는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만로랜드코리아는 이번 전략적인 제휴를 계기로 패키징 분야에서 보다 다양하고 고급스러운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SK그룹, VIP용 캘린더 2년연속 특별상 수상

SK그룹(회장 최태원, www.sk.co.kr)은 지난 1월 15일 조상들의 서예작품을 소재로 제작한 2009년도 VIP용 캘린더가 '일본 캘린더 전시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특별상을 받은 SK그룹 VIP용 캘린더는 매년 문화와 예술을 담아 제작해 왔으며 올해는 우리 조상이 2000여 년 전부터 사용하고 지켜왔던 한자와 한글 등 보물급 서예작품을 소재로 해 만들었다.

일본 인쇄산업 연합회가 주관하는 일본 캘린더 전시회는 매년 일본에서 제작된 캘린더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제작된 캘린더를 대상으로 응모작을 모집해 대학교수와 전문가가 수상작을 선정한다. SK그룹 권오용 브랜드관리실장은 "우리 선조들의 문화와 예술이 담긴 작품들로 제작한 SK캘린더가 세계무대에서 2년 연속 특별상을 받은 것에 문화적 자긍심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SK그룹 VIP용 캘린더를 단순한 캘린더가 아닌 가장 한국적인 예술작품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SK그룹 VIP용 캘린더는 지난해에 이어 (주)연미미술(대표이사 전후연, www.yon-art.com)에서 인쇄되었다.

## 한국후지제록스, 불황타개를 위한 TCO 절감 솔루션 영업 전개

한국후지제록스(대표 정광은, www.fujixeroc.co.kr)는 복합기에 대한 제품 소개에 앞서 '3대 TCO 절감비법'을 고객사에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고 있는 3대 TCO 절감비법 중 첫 번째는 '출력기기 제어를 통한 출력 비용 절감'이다. 간단히 말해 사원카드를 이용해 로그인한 사람만 복합기를 사용할 수 있어 특정 부서나 특징인은 흑백복사만 가능하게 하거나 아예 복사를 불가능하게 설정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종이가 필요 없는 페이퍼리스 오피스(Paperless Office)' 구현을 통한 TCO 절감이다. 불필요한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바꿔 직접적으로는 출력비용을 줄이고, 간접적으로는 종이문서의 보관/배부/전달 등의 비용을 장기적으로 줄여주는 솔루션이다.

마지막으로는 '고객 출력 환경 컨설팅을 통한 출력기기 최적화' 방법이 있다. 사용 중인 출력기기 대수, 출력매수, 출력기기 종류 등을 토대로 'A program'이라는 후지제록스의 전문 툴을 이용하면 고객과의 상담 중에 즉석 컨설팅을 할 수 있다.

한국후지제록스 황인태 영업본부장은 "이러한 절감 솔루션을 고객사에 선보이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토너나 종이 등의 소모품 매출이 줄어드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 고객사의 입장에서 절감비법까지 충고해주는 판매업체와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불황기에 고객사 확보라는 점에서는 확실한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 한국후지제록스, 환경관리 우수기업 선정



한국후지제록스(대표 정광은, www.fujixeroc.co.kr)는 인천시 서구 가좌동 소재 개발생산본부의 환경관리 실적을 높이 평가 받아 인천광역시청으로부터

2008년도 '인천광역시 환경관리 우수기업'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청은 환경전략에 의한 생산활동 과정에서의 유해 화학물질 관리(RoHS), CO<sub>2</sub> 저감을 위한 절전캠페인,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천연자원 보호 정책, 환경시설에 대한 투자활동(담장공사 및 화단조성) 등을 높게 평가해 한국후지제록스를 선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국후지제록스 김현곤 개발생산본부장은 "이번 인천광역시 환경관리 우수기업 선정은 개발생산본부 전 사원의 노력과 협조를 통해서 얻은 결과라 더욱 기쁘다"고 말했다.

## 한국HP, 폐카트리지 회수로 환경 사랑실천



한국HP(대표 최준근, [www.hp.co.kr](http://www.hp.co.kr))는 구  
랍 22일, 다일공동체  
(대표 최일도 목사,  
[www.dail.org](http://www.dail.org))에 폐카  
트리지 재활용으로 절  
감된 비용으로 마련한

쌀200포를 기증했다. 한국HP는 지난해 웅진그룹과 '폐카트리지 회수 협  
약'을 체결, 폐카트리지를 수거해 재활용되는 비용만큼 친환경 쌀을 구입  
해 전량을 기증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한국HP는 HP플래닛 파트  
너스 프로그램을 통해 다 쓴 토너를 회수하고 해당 토너 제품에 따른 포  
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HP 오리지널 포인트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고객이 직접 폐카트리지 재활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친환경 경영을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국 HP 그룹 이미지 프린팅 그룹장 조태원 부사장은 "웅진그룹과 협  
약을 맺은 후 짧은 시간 안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  
다"며 "한국HP와 웅진, 다일공동체가 모두 더 돈독한 파트너십을 이어가  
고 이번 기증식을 시발점으로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폐카트리지 재활  
용을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일공동체 대표 최일도 목사는 "연말연시를 맞아 두 기업이 환경과 이  
웃사랑이라는 두 가지의 큰 취지를 가지고 이런 훈훈한 자리를 마련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에 관심을 가지  
길 바라며, 어려운 시기를 모두가 함께 이겨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말했다.

## HP, 가트너 보고서 선정, '복합기 및 프린터 분야' 리더 업체로 선정

한국HP(대표 최준근, [www.hp.co.kr](http://www.hp.co.kr))는 최근 시장 조사 기관인 가트너  
(Gartner)의 매직 쿼드런트 보고서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복합기 및 프  
린터 분야의 리더 쿼드런트(Leader Quadrant)로 선정 됐다고 발표했다.  
HP는 지난해 10월 '통합출력관리서비스(MPS)' 분야에 이어 '복합기 및  
프린터' 분야에서도 최고업체상인 리더 쿼드런트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  
뤘다. 최근 가트너가 발표한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보고서'에 따르면, 보  
고서 대상 업체들은 제품의 특성뿐만 아니라, 서비스, 판매실행 및 가격  
책정을 통해 평가되며 또한, 시장 대응성, 실적, 마케팅 실행결과, 고객경  
험 등을 포함한 제품제공 전략, 비즈니스 모델, 지리학적 전략 등을 이용,  
최종적인 가중치를 두고 평가한다.

아시아 태평양 및 일본 지역의 HP 이미지 프린팅 그룹의 레이저젯 및 기  
업 솔루션 사업부의 롱한콩(Loeng Han Kong) 부사장은 "매직 쿼드런  
트 보고서에서 HP가 리더 쿼드런트로 선정된 것은 HP와 고객과의 확고  
한 관계와 전 세계 고객들에게 가장 뛰어난 복합기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하는 HP의 노력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HP는 복합기 제품군

을 더욱 확대하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효율성과 성능을 함께 구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보강함으로써 앞으로도 끊임없이  
출력 업계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 HP 이  
미징 프린팅 그룹장 조태원 부사장은 "HP의 리더 쿼드런트 선정은 그 동  
안 HP가 고객들에게 서비스했던 다양한 솔루션 확인을 통해 업계의 리  
더로서 입지를 굳히는 계기가 되었다"며 "향후 HP는 생산성을 강화하는  
이미징 프린팅 환경을 제공하고 모든 고객들에게 다양하고 효율적인 프  
린팅 환경을 제공하여 미래의 프린팅 산업의 다양한 포트폴리오와 솔  
루션을 통해 부가가치를 꾸준히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 아그파코리아 2009년 시무식 가져



아그파코리아(주)(대표  
이사 권순기, [www.  
agfa.com/korea](http://www.agfa.com/korea))는  
지난 1월 5일 월요일  
11시, 충무로 극동빌딩  
21층 본사 사무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

데 사내 행사를 겸한 시무식을 가졌다. 권순기 사장은 시무식에서 "어느  
분야에서든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열정을 가지라는 말은 최선을 다한다는 말과도 같으며 최  
선을 다하면 자제만으로 이미 성공의 길에 올라선 셈"이라고 말했다. 그리  
고, 지난 2008년에는 대외적으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직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자신  
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2009년에도 더 어  
려운 대외환경과 많은 어려운 도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모두가  
열정을 품고 맡은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한다면 지속적인 성장의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아그파코리아는 한국에서 적용  
가능한 CMS 기법을 도입해 국내 인쇄사 및 출판사를 컨설팅하고 있으며  
친환경 무현상 판재 '아주라'의 국내 생산을 진행하고 있다.

## 한국하이델베르크 2009년 시무식 개최



한국하이델베르크(주)(대  
표이사 김범식, [www.  
heidelberg.co.kr](http://www.heidelberg.co.kr))는  
2009년의 힘찬 도약  
을 기원하면서 지난 1  
월 6일 사내 대회의장  
에서 시무식을 가졌다.

전 직원이 새해의 목표와 다짐을 적어 제출하면서 목표 달성의 의지를  
다지고 서로 새해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며 인사를 나눴다. 시무식에서  
김범식 대표는 "소의 해를 맞아 소는 우직하고 성실히 일하며 죽을 때까지  
도 인간에게 온 몸을 바쳐 헌신하듯이 과거 어느 때보다 위기 극복을



위해 전 직원이 헌신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긴 어둠의 터널 끝에 빛이 있듯이 위기를 기회를 삼고 고객들과 언제나 함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일진PMS, 2009년 해맞이 등반



일진PMS(주)(대표이사 박경재, [www.iljinpms.co.kr](http://www.iljinpms.co.kr))는 지난 1월 전 직원이 해맞이 등반으로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불암산을 등반했다고 전했다. 해

맞이 산행은 일진PMS가 해마다 신년에 개최하는 사내 행사로 올해는 불암산을 등반했다. 영하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전원 불암산 정상상에 오르는데 성공하였으며 산 정상에서 기념촬영의 시간을 가진 후에 이재수 부대표는 "2008년도 하반기는 경기 침체로 다들 힘든 시기였으며 인쇄업계가 큰 타격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며 "2009년 역시 쉬운 해는 아니겠지만 오늘 등반처럼 한명의 낙오자 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변화된 일진PMS의 모습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 아그파그래픽스 세일즈 팀 커뮤니케이션 교육 실시



아그파코리아(주)(대표이사 권순기, [www.afga.com/korea](http://www.afga.com/korea))는 구랍 23일 서울유스호텔에서 활기차고 능동적인 조직문화 구축과 고객 만족 경영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실시했다.

인사부 배선희 이사는 "최근 각 기업에서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활발하게 진행하게 있다"며 "이는 정보 홍수의 시대, 다양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비즈니스맨에게 다른 사람과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핵심 역량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대외 환경 가운데 고객과의 좀 더 밀접하고 원활한 의사소통만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과정에 참여한 홍요선 과장은 "이번 과정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자신감과 긍정적 사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문제해결 방법을 배우게 되었으며 업무와 관련된 직접적인 사례를 가지고 팀 활동을 전개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참가자 스스로 내면으로부터 결의를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아그파 코리아는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매주 금요일 영업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Pre-sales 팀에서 운영해 오고 있다.

## 출판뉴스

Publishing news



## 파주출판도시, 겨울방학 초등학생 독서캠프



겨울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독서캠프가 파주출판도시에서 열렸다. 방학 때마다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되어 온 파주독서캠프는 지난 1

월 15일부터 22일까지 출판사들이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진행한 가운데 출판도시내의 출판사, 인쇄사, 유통센터를 직접 방문, 책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 됐다.

이번 캠프에서는 TV 역사드라마 자문위원이며 저자인 김용만 선생의 고구려 역사 이야기를 시작으로 조선시대 그림을 감상하고 이에 얽힌 이야기를 듣는 순서와 자연을 관찰하고 세밀화를 그리는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한편, 과학강사와 함께 행성을 만들어 보고 동화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 보는 시간 등은 좋은 반응을 받기도 했다. 이번 캠프에는 길벗어린이, 보리, 주니어김영사, 도서출판 청솔이 선정되어 각 사의 대표도서와 함께 저자가 참가했다.

## 제5회 한국출판문화대상 시상식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백석기)는 구랍 29일 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에서 한국출판문화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10월 28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접수 받은 도서를 대상으로 각 분야별 전문 심사를 통해 제5회 한국출판문화대상의 수상작이 선정되었으며 대상, 기획·편집, 일러스트레이션, 저술, 번역, 특별상 등 총 6개 부문에 대한 상이 있었다. 대상수상자로 김경택(주)그레이트북스, 임양목(도서출판 숲)씨가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받았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한국출판경영자협회와 함께 출판사의 양서출판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출판문화대상을 2004년에 제정, 시행하고 있다.



## 윤형두 범우사 대표 세계인명사전 등재



윤형두(73) 범우사 대표가 세계 인명사전인 마르퀴스 후즈후(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09년판에 등재됐다고 범우사 측이 최근 밝혔다. 윤 대표는 앞서 1999년과 2008년에도 마르퀴스 후즈후에 등재된 바 있다. 윤 대표는 1966년 범우사를 설립한 이래 한국출판협동조합 이사장과 한국출판학회 회장, 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 한국일보사 주최 한국출판문화상 시상식

한국일보사가 주최하고 ㈜두산이 후원한 제49회 한국출판문화상 시상식이 지난 1월 15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한진해운센터빌딩 본관 26층 강당에서 열렸다. 시상식에서는 <니벨룽의 보물>(문학과지성사 발행) 저자인 정문길 고려대 명예교수, <나의 국토 나의 산하>(한길사 발행) 저자인 소설가 박태순씨가 각각 학술, 교양 부문 저술상을 수상했다. 편집상은 <세밀한 일러스트와 희귀 사진으로 본 근대 조선>(살림 발행) 편집자 이기선, 박미정씨가 수상했다. 번역상은 <진인가, 최후의 20년>(사계절 발행) 역자인 서울대 동양사학과 박한제, 김형중 교수가 공동 수상했다. 어린이·청소년 부문에서는 <보리 국어사전>(보리 발행)을 펴낸 토박이사 전편찬실이 수상했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패와 상금 500만원이 수여됐다. 특별상 수상자인 박명호 민음사 회장에게는 상패와 상금 300만원이 수여됐다.

## 파주 출판단지엔 영상단지 조성된다

경기도 파주시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에 대규모 영상산업단지가 들어선다. 출판산업단지 사업조합은 2단계 출판단지 부지의 산업시설 용도인 20만 1781㎡ 가운데 절반(49.8%) 가량인 10만 486㎡를 영상산업단지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사업조합은 이를 위해 싸이더스FNH, 청어람, 영화사 집, 마술피리, 나비픽처스, 모호필름, 아이필름코퍼레이션 등 주요 영화제작사를 비롯한 28개 영상업체로부터 출판단지 2단계 부지를 공급하기 위한 협동화 사업계획서를 받았다. 이들 업체는 올해 3월에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사를 거쳐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파주 출판산업단지 2단계 건립사업은 최근 국토해양부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받았다. 2단계 부지는 산업시설(20만 1700㎡), 공공시설(37만 500㎡), 지원시설(8만 5800㎡), 주거용지(2만㎡)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산업시설 용도 가운데 영상산업단지를 제외한 나머지(10만 1301㎡)는 소프트웨어 산업(6만 4872㎡), 출판·인쇄업(3만 6422㎡) 단지로 만들어진다. 출판산업단지 사업조합 관계자는 “출판단지 내 영상산업단지에는 최종적

으로 45개 가량의 영상업체가 입주하는 한편 대규모 영화촬영소 등이 들어서 영화 기획 및 제작에서 촬영, 편집까지 일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판산업단지는 2004년 1단계 부지 87만 4000㎡가 개발돼 출판 158개 업체, 인쇄 54개 업체 등 226개 업체가 입주한 국내 최대의 출판단지로 만들어졌으며, 2단계 사업이 올해 2월 착공, 2011년 말까지 68만 5814㎡ 규모로 조성되면 160여개의 업체가 추가로 입주하게 된다.

:: 제지뉴스

Paper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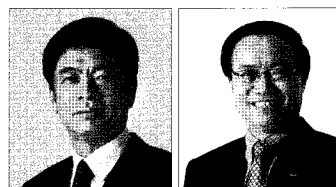
## 무림, 2009 시무식 및 하례식 개최



무림은 지난 1월 2일 서울 본사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 시무식 및 임직원 하례식을 가졌다. 이동욱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야말로

최고의 위기는 최대의 기회라는 교훈을 실천하고 증명할 수 있는 해”라고 강조하며 생존은 물론 각 분야에서 1등 기업으로 날 수 있는 한 해가 되자고 격려했다. 이날 시무식 이후 임직원 하례식에는 이동욱 회장, 김인중 사장을 비롯해 임직원들이 일일이 악수를 하며 한 해의 덕담을 나눴다. 한편 무림페이퍼 진주공장, 무림SP 대구공장, 동해펄프도 별도의 시무식을 가졌다.

## 무림그룹, 임원 승진인사



박인섭 부사장

이규현 부사장

무림은 구랍 22일 임원 승진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무림은 업무능력과 실적을 고려한 임원승진 발탁으로 분야별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했다. 또 순환보

직을 통해 경력을 관리하고 조직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승진> 전무)부사장 이규현(관리본부장), 상무)전무 김영식(전략기획본부장), 이사)상무 안홍석(구매담당), 이사)대우)이사 김호수(해외영업담당) (보직변경)이도균 이사(제지사업본부부장)관리본부부장) <신임임원> 박일수(국내영업담당), 이상호(마케팅담당), 류신규(전략경영담당), 하대성(일반화건설담당) 동해펄프 <승진> 전무)부사장 박인섭(펄프사업본부장)

## 무림, 제지·펄프부문 임원 워크숍 개최

무림이 지난 1월 16일부터 양일간 동해펄프에서 제지·펄프부문 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무림은 "이번 워크숍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문별 올해의 사업전략 및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무림그룹 펄프·제지부(무림페이퍼-무림SP-동해펄프)의 전 임원들은 제지사업, 관리, 전략기획, 일관화건설, 펄프사업 등 각 부문별로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영 운영방안과 그룹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 무림, 네오클럽21 신년회 개최



무림은 지난 1월 9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VIP고객 커뮤니티인 '네오클럽 21' 신년회를 개최했다. 어려운 경영환경이 예상되는 2009년을 맞아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날 신년회에서 회원사들은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견뎌내자"고 다짐하며 새해 덕담을 나눴다.

이날 신년회에는 동광상사, 승일지업, 종이와 믿음, 화인페이퍼 등 새로운 고객사 대표들이 함께 해 무림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약속하며 무림의 임원 및 영업팀장과 함께한 21명의 회원사 대표들은 평소 무림에 대해 가져온 다양한 바람을 전하며 2009년에도 변함없는 상호협력의 관계를 기약했다.

## 한국제지, 신년하례회 및 우수 거래처 포상



한국제지(대표 전원중, www.hiper.com)는 지난 1월 9일 인쇄용지 대리점을 비롯해 실수요 고객, 복사지 대리점 등 총 30여개 업체 대표를 초청해 '2009년 신년하례회'를 치렀다. 이날 한국제지는 새해 인사와 더불어 우수 거래처 포상으로 고객의 성원에 감사를 표하였으며 고객과 함께 올해 업황을 전망하고 사업 번창을 기원했다.

한국제지(대표 전원중, www.hiper.com)는 지난 1월 9일 인쇄용지 대리점을 비롯해 실수요 고객, 복사지 대리점 등 총 30여개 업체 대표를 초청해 '2009년 신년하례회'를 치렀다.

## 한국제지, 2009년 시무식 개최

한국제지(대표 전원중, www.hiper.com)는 지난 1월 5일 시무식 행사를 서울 본사 8층 회의실과 공장 대강당에서 각각 열었다. 이날 전원중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전 세계가 "폭이 넓고 골이 깊으며 바닥에 이르기까지 소요될 시간이 오랄 불황"에 시달리고 있음을 언급하며 "노와 사, 계층과 직무를 망라해서 모든 조직구성원이 해낼 수 있다는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단합된 힘을 발휘한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먼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임을 역설했다.

이에 앞선 구급 31일 중무식을 겸한 다과회에서 전 사장은 "쇠를 달구고 두드리면 쇠의 성분 자체가 달라져 명검으로 거듭나듯 위기를 기회로 삼아 스스로 교훈을 얻고 단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 고모리코퍼레이션, 2009년 캘린더 일본경제산업성 국장상 수상



고모리 코퍼레이션(대표 고모리 요시하루, www.komori.co.jp)은 지난해 말 열린 제 60회 '전국캘린더전'에 고모리 캘린더를 출품, 전국에서 모인 1천점의 작품 중 경제산업성 상무정보정책국장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고 밝혔다. 이번 고모리 캘린더는 40년 전 아날로그 방식의 인쇄물 제작과정을 현대의 디지털로 표현한 작품으로 인쇄제작 과정의 뒷이야기를 담고 있다. 일본의 아티스트 요코오씨의 포스터, 잡지 삽화용 일러스트레이션 및 인쇄용 원고에 색지정 지시서 등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으며 제작 당시 색 지정을 현대의 인쇄기술로 재현하고자 시도했다. 이는 인쇄기술 및 프로세스를 보여주자 함이 아니라 미술가가 완성이미지의 전달방법을 구상하고, 인쇄기술자가 그 의도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한 상호 신뢰관계를 나타내고자 기획한 작품이다. 일본전국캘린더전은 사단법인 일본인쇄산업연합회가 주최하는 4대 전시회의 하나로 1950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 코닥, 패키징 전문 NuPro테크놀로지 인수



코닥은 플렉소인쇄 관련 기업인 NuPro테크놀로지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코닥에 따르면 누프로 (NuPro Technologies)는 플렉소 제판 작업용 세척액과 솔벤트 재생장비를 전문적으로 생산해 온

업체이며 이번 인수를 계기로 기존의 솔루션에 누프로의 기술이 추가되어 코닥 그래픽커뮤니케이션 그룹의 포장 솔루션의 완성도가 한층 높아졌다고 전했다.

코닥의 포장 솔루션 Flexcel NX 디지털 플렉소 시스템은 이미 다양한 국제 어워드에서 수차례 수상한 바 있으며 코닥의 패키징 솔루션에 누프로의 혁신적 제품군이 추가되어 코닥은 포장 시장에서의 입지를 크게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코닥의 프리프레스솔루션 패키징담당 제너럴 매니저인 존 크로스는 “코닥의 경영철학 대로 우리는 통합과 동맹으로 인쇄 산업에서 혁신의 역사를 써나갈 것이며 고객이 더 빠르고 편리하게 저비용 최고효율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새로운 솔루션 개발과 제품의 성능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롭게 코닥의 경영진으로 합류한 브래드포드 전 누프로 회장은 “누프로가 수년간 개발한 제품과 솔루션은 플렉소 인쇄사업자들에게 비즈니스 생산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환경공해를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코닥의 다양하고 폭넓은 포트폴리오와 누프로의 솔루션과 제품군이 함께하면 양사의 시너지를 올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으며 앞으로도 혁신과 끈기를 가치로 플렉소 제품군 개발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누프로는 최근 솔벤트에서 나오는 냄새를 혁신적으로 줄인 플렉소판 세척액으로 휘발성 유기 복합물(VOCs)의 생성을 줄여주는 제조법을 개발했으며 이 제조법은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공업용 유해물질을 배출 기준 이하로 감소시켜 친환경성을 크게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누프로의 저온 재활용 시스템(CRS)은 진공 증류 방식으로 솔벤트 재활용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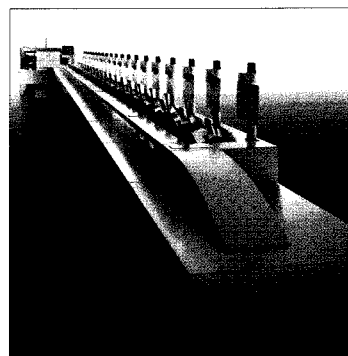
## 후지제록스, 일본 2008 환경능률상 수상

일본 후지제록스는 지난 1월 8일 일본경제산업성(METI)이 선정하는 '2008 환경능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일본 후지제록스는 사무기기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친환경적인 서비스와 솔루션을 개발하고 고객들에게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일본 후지제록스는 친환경 시뮬레이터(사무실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도구)를 이용해 고객들이 후지제록스의 서비스나 솔루션들의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후지제록스는 내부적으로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웹사이트와 뉴스레터 등을 통해 고객의 환경 인식을 높이는

데 투자 하고 있다.

후지제록스가 이번에 수상한 환경능률상은 친환경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한 기업과 단체를 통해 친환경 실천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되었으며 지난 2005년부터 일본 경제산업성 후원으로 선정, 발표되고 있다. 일본 후지제록스는 이번 수상에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이 주최한 제4회 친환경 대상에서 친환경 복합기로 경제산업성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하이델베르크 유로바인드 4000, iF Product Design Award 2009 수상



하이델베르크의 유로바인드 4000 무선철기가 제16회 iF 디자인상을 수상했다. IF(Industrie Forum Design Hannover)심사위원회는 2808명 후보 가운데 전체 802명의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39개국에서 1205개사들이 이 대회에 참여했다고 밝

혔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종합적인 기준을 충족시키면서 현대적 디자인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에게 이 디자인상을 수여해 왔다. 하이델베르크의 유로바인드4000은 산업 부문에서 수상했으며 이는 지난 1990년 이후 프리프레스, 인쇄 및 후가공 제품을 총괄해 하이델베르크에 16번째로 수상하는 iF 상이다. 신제품 유로바인드 4000 무선철기는 하이델베르크 디자인의 중요 요소인 품질, 고유적 분위기, 성능, 매력 및 열정과 같은 가치를 충실히 담고 있다. 기하학적 구조와 차별화되는 요소들이 큰 외부가 제품 디자인의 중요 특징이다. 유로바인드4000은 뛰어난 유연성을 보장하고 사용하기가 쉬운 모듈식 디자인을 갖고 있으며 다양한 설정으로 직관적인 심볼을 통해 식별할 수 있게 해 작업자의 작업효율을 높여 준다.

## 코닥 아태 본사 대표에 스테판 그린 씨



2009년 1월 1일부로 코닥 아시아태평양 본사의 스테판 그린(Stephen Green) 부사장이 아시아태평양 본사 대표로 취임했다. 스테판 그린 대표는 전 아시아태평양본사 부사장이자 코닥GCG 프리프레스 분야 총 책임자로서 지난 25년 간 세일즈, 마케팅 분야의 리더로 활약해 왔다. 이번 승진으로 그린 대표는 코닥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컨슈머 그룹과 그래픽커뮤니케이션 그룹의 경영을 총괄 담당하게 됐다. 스테판 그린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금방 포기하면 절대 성공 할 수 없다, 성공하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며 더욱 큰 기회와 잠재력을 가진 아시아태평양의 발전을 위해 전심을 다하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